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49호
5월 25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정기총회 개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대로 믿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
인본주의적 사상, 종교다원주의, 이단과 사이비 세속화의 물결 막아내야



신임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코스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정기총회 가 지난 5월 20일(월)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수 1:7)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핵 위협 등 세계 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

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생명의 약속인 말씀만 기억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앞날에 패역한 세대와 악랄하고 교묘한 원수마귀가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섭리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 하는 것을 믿는다"고 전하고 "지난 회기동안 많은 관심과 기도와 베풀어 주신 선 후배 동역자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임 경기지방회장 엄석재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회계 조선평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

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수 1:6-9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가 가지는 담대한 마음이란 사실 공허한 것이며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당신이 범사에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이어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과 섭리의 손을 내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서 담대하게 행동한다. 전개되는 과정과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긴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우리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정영진 목사(전임 부산지방회장), 김건수 목사(전임 제주지방회장),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제공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71차, 72차 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30년 근속자 14명(염종규, 김갑진, 장세영, 김여호수, 소영진, 안종식, 석춘자,

방정단, 이창순, 박운석, 김정근, 이성은, 유홍열, 김사무엘 목사)에 대한 근속패를 증정했다.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명희 사모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교단 재무 백영자 목사의 헌금기도, 은혜와진리교회 김은경 솔리스트의 헌금송, 교단 서기 임형순 목사의 광고, 교단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정기총회는 전동용 목사의 개회기도 후 목사고시 합격자 인준 등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에 김영준 목사, 부총회장에 이인호 목사, 총무에 오세준 목사, 서기에 장동근 목사, 재무에 김기진 목사, 회계에 백영자 목사가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코스망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우리 교단의 아름다

운 전통을 따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기도, 협력을 당부했다.

신임총회장 김영준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73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73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73차 교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감염병 유행 후 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해,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 반대,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WCC·WEA 반대,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공로패-총회장 김병목 목사



공로패-부총회장 김영준 목사



공로패-총무 정진균 목사



공로패-서기 임형순 목사



공로패-재무 백영자 목사



공로패-회계 조선평 목사

이영미, 씨에호우위 선교사 목사안수식

구원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 다짐

교단 총회는 지난 5월 20일(월) 오후 4시 교단 정기총회 후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이영미, 씨에호우위 선교사에 대한 목사안수식을 갖고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교사로서 장도에 오르는 앞길을 축복했다.

이날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51:12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일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우신바 된 사역자로서 구원받은 즐거움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



나눔께서 부여하신 영적권위를 갖고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김영준 목사 집례로 서약, 안

수위원들에 의한 안수,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 수여가 있었으며 사회자의 광고 후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전국사모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이을순 사모 선임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신명희 사모)는 지난 5월 20일(월) 오후 2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을순 사모를 선임하는 한편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함께 드린 후 곧바로 3층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전국사모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선출에 들



어가 신임회장에 이을순 사모(갈릴리코스망교회)를 선출했으며 임원진을 개설했다.

고문 최혜선 사모, 김양숙 사모, 전직회장 김양란 사모, 차경애 사모, 신동신 사모, 차추련 사모, 윤금자 사모, 김귀순 사모, 감사(직전

회장) 이명희 사모, 1부회장 손정희 사모, 2부회장 최인석 사모, 총무 김세희 사모, 부총무 박미용 사모, 서기 김재희 사모, 부서기 김길순 사모, 회계 나명순 사모, 부회계 이운선 사모, 재무 최윤정 사모

회원권 상실 교단 복귀 문 활짝 연다

한기총, 제35-2차 임원회 열어 특별기간 갖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5월 2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로부터 의장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경환 목사가 주재했고, 참석 22명,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전토의가 이어졌다.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동성애, 동성혼 관련 입법 반대 기도회의 건으로 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 입법저지 또는 폐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함을 의장이 설명한 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맡겨 6월경에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로 자문회의 신설 주



인의 건은 지난 4월 기도회에 이미 원로 자문회의 고문으로 소개된 조용목 목사에 대해서 고문으로 인정하되, 정관에 맞게 우선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구성을 하기로 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회원권이 상실되면, 회원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회비의 의무만 쌓이는 유명무실한 회

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까지 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하여 정상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대표회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바른 신앙 유산 계승해야”

기침, 2024 신사참배 거부 기념 감사예배 드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 · 1부총회장 직무대행 김일엽 총무)는 지난 5월 10일(금) 충남 논산 강경교회에서 “2024 신사참배 거부 기념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일제시대 침례교단 전신인 동아기독교교단 32명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저

항하던 중, 1944년 5월 10일 합충재판소에서 ‘교단 폐쇄령’이 내려져 교단이 폐쇄되고 재산이 몰수됐다. 이러한 고난과 수난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2015년 9월 105차 정기총회에서 매년 5월 10일을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일’로 제정해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총회 교육부장 박보규 목사(청주상록수교회)의 사회로 농어촌부장 황인전 목사(시흥천송교회)가 기도하고, 24·25대 총회장을 역임한 오관석 원로목사(하늘비전교회)가 “우상을 섬기다 패망한 므낫세(대하 33:1-13)”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관석 목사는 “불순종했던 므낫세가 한 난을 당한 이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돌아와야 때”라며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우상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상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해야 한다. 그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침례교단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총연, 제19회 춘계수련회 개최

22개 회원교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강홍희 목사, 이사장 유영섭 목사, 이하 예총연)가 5월 9일(목)부터 10일(금) 양일간 경기도 가평 오론비전빌리지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제19회 춘계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개회 예배에서 부총회와 특강으로 이어지며 말씀과 기도, 배움과 교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예총연 22개 교단 및 단체 회원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강홍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예총연을 세우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따



라 하나된 연합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향해 동역하며 걸어가자”라고 말했다. 김순일 목사(선교협 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김경호 목사(기독교

부회장)의 개회기도, 임순옥 목사(회의록서기)의 성경봉독, 이사장 유영섭 목사의 사 2:17-22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장개혁총회, 목사 · 장로 기도회

정서영 총회장,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4월 30일(화) 대전 한화리조트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는 제1부 세미나, 제2부 예배, 제3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기도회는 합동 이후 처음 갖

는 기도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여 총회원이 함께 했다. 제1부 세미나는 안양노회장 이금숙 목사의 기도 후 수도권제대학원대학교 이지혜 교수(Ph.D., 신약신학)가 ‘히브리어가 말하는 아들 됨’을 주제로, 제1강 ‘잠시 동안 천사보

다 못하게 하시며(3-4장)’, 제2강 ‘광야를 지나 들어가는 안식(1-23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어 정서영 총회장의 소개로 수도권제대학원대학교 설립이사장 나원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나 목사는 “합동 후 첫 목사 장로 기도회 모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 모두 부흥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부 예배는 부총회장 이상규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유영섭 장로의 기도, 서기 김양수 목사의 성경봉독, 수도권제대학원대학교 임흥재 · 하수연 교수의 특송, 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창 11:29-12:2절을 본문으로 한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 ‘꿈나무’에 예수사랑 실천

복지시설에 자립지원금과 생활용품 전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5월 10일(금)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자립지원금 100만원과 아기용품 및 휴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주관한 이날 미혼모자 시설 지원은 올해로 10년째로 코로나19 때도 한번도 빠짐없이 나눔과 섬김 사역을 지속해 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전달식은 공선영 목사(여성위 서기)의 사회로 양태화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홍정자 목사(상임회장)의 ‘가치 있는 양육’이란 제목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는 “위대한 신앙인 존 웨슬리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다”라며, 가치 있는 양육을 위한 ‘관심’, ‘기도’, ‘신앙의 본을 통한 양육’, ‘소망’을 심



고 격려’ 등 4가지로 소개했다. 홍 목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꿈을 심어줄 때 아이들은 그 꿈을 향해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이라며, “요즘도 꿈을 꾸는 자였다.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실 것을 알고 인내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목회자 등 훌륭한 꿈을 갖고 인재로 잘 자라길 기도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서공회, 상투메프린시페에 성경 기증

이상경 장로 · 김연옥 권사 가정 후원으로 포르투갈어 성경 전달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는 지난 5월 7일(화) 이상경 장로 · 김연옥 권사 가정(창조교회)의 후원으로 상투메프린시페에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상경 장로 가정은 2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23년 니제르에 이어 올해 상투메프린시페까지 총 3,363권의 성경을 후원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

사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오늘 상투메프린시페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미자립성서공회인 상투메프린시페성서공회를 대신하여 루소폰(포르투갈어)을 사용하는 지역) 성서공회를 지원하는 포르투갈성서공회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포르투갈성서공회 리더이 플레처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상투메프린시페에 성경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송실대학교, 기독교 전통 잇는다

서울 송실 세움 70주년 5개 학과 합동 기념행사 개최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 5월 11일(토) 송실대학교 환경직기념관에서 서울 송실 세움 70주년 5개 학과 합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 5월은 평양에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해 자진 폐교한 송실대학교가 1954년 서울에서 다시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는 해로, 당시 서울 송실대학교 시작을 연 경제학과, 법학과(+국제법무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회가 한마음으로 합동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5월 9일(목) 학과 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5월 11일(토) 학과 동문,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열린 예배 및 기념식은 새은혜교

회 황형택 목사(철학 79) 사회로 찬송, 기도(동대문감리교회 박영립 장로, 법학 75), 성경봉독(신영웅 학생, 사학과 학생회장), 설교 주승중 목사(영문 77), 축사 장범식 총장과 문태원 총동문회장), 축하행사, 교가, 축도 조성기 목사(송실사이버대 이사장, 철학 67) 순

으로 진행됐다. 축하행사에서는 송실대 24학년 학생들이 서울 송실 1회 졸업생인 54학번 동문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기념식 후 송실대 교목인 목련나무를 심는 기념식수 행사가 이어졌다.



예장합동선목, 연합예배 및 친교대회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사명감당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총회(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지난 5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랑구 동일로 소재 목양교회에서 총회 교역자 및 신학생 부부동반 연합예배 및 친교대회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안명모 목사(살아나고

회) 사회로 염소방 목사(동서울노회 노회장)의 대표기도, 문희강 목사의 성경봉독, 이월순 목사(주축복교회)의 특송, 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창세기 1:1절을 본문으로 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국경 목사는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모

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종의 길을 가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전파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이어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폐회한 후 특별한 순서를 갖고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단소속 마경영 목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부 친교대회는 김민희 목사 사회로 준비위원장 김대환 목사의 개회선언 및 기도 이어 총회장 김국경 목사가 노회별 참가자 소개와 신임회원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우선 관계로 실행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회별, 개인별 찬양 및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안동성곡교회
- 교정선교회 회장

(마 18:1-4)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돌이켜 - 돌이키라는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를 존중히 여기지만 당시 사회는 어린 아이를 다수롭지 않게 여겨 멸시까지 합니다.

(마 19:13-14)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무시를 당했기에 어른들의 말도 잘 듣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눅 10:21)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17, 20)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보다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 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20:25-28)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들은 아직 천국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천국에 누가 더 크냐에 오히려 더 큰 관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믿음도 제대로 못 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고 흠대합니다.

(마 18:5-6)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귀히 여겨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 18: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화를 당하는 것이 어떤 화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 18: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 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는다는 것은 항상 보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으면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고할까요? 세상에 살 동안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일까요? 건장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이견희 삼성 그룹 회장님을 아십니다. 삼성을 세계 16위의 기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틋

하게 쓰시다가 72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78세에 별세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다가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어떤 댓가를 지불해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벧전 1:6-9)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만난 많은 시험을 통하여 실족할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갑니다. (마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너무나 가깝게 느끼며 사는 천국생활입니다. 다가를 영광의 날이 언제라도 아멘하고 기다립니다.

청송 제3교도소에서 생명의 말씀 증거

교정선교회 강태진 목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 전하

교정선교회(회장 강태진 목사)는 지난 5월 7일(화) 교정선교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를 비롯 선교위원 기호선 목사(교산순복음교회) 등이 청송 제3교도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재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사

람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내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

교정선교회는 지난 4월 11일(목) 경기도 파주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같은 자에게 복

음을 풀린 자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별로 마음을 모아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사역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교정선교회를 설립하



여 지치고 힘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헌신을 다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란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자의적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된다.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도 나와 있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또 제1조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 상대적 인권에 관한 것은 2018년 8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연수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의 투쟁에서 얻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쥐어줌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여들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8226;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체주의, 규레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동정

한국 교계 목회자 재교육에 힘써



이정의 목사가 4년간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마치고 5월 24일 퇴임했다. 신촌성결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면서 교단 총회장과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CBS 재단이사장을 지내는 등 한국 교계에서 굵직한 족적을 이룬 목회자가 현장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신학교육 기관의 총장에 부임하자 목회와 신학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최근 교육부 지원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 지원 대학’에 11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고교-대학 간 연계활동을 활성화했다.

총신대, 개교 123주년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 목사)가 지난 5월 14일(화)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 대강당에서 개교 12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념예배에서는 김희석 부총장의 사회로 김영구 장로(장로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오정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가 설교했다.

UMC 동성애자 목사안수 큰 실수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승연 담임목사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의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에 대해 “이번 사건은 현대교회사가 성경을 벗어난 인간 위주로 흘러가 버린 심각한 실수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밝힌 ‘차별적 언어의 삭제’는 지난 교회사에 비춰볼 때, 머지않아 ‘성경적 진리의 삭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인권위 규탄 투쟁’ 1주년 시위

국민의 의사 무시 동성애자 대변 동성애인권위 규탄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인권행동, 이상 공동대표 주요섭 목사)이 지난 5월 17일(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제2차 인권위 규탄 투쟁’ 1주년 기념 단체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이날은 매년 5월 17일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로, 일명 ‘아이다훗(IDAHOT) 데이’이기도 했다.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양성애자 등 각종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날인데, 반동연과 자유인권행동은 이 역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인권위에 대해 “왜 맞대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참예한 논쟁거리를 불러오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일방적으로 동성애자, LGBT를 일방만 대변해 오고 있는가”라며 “그렇기에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크





신임 총회장 김영준 목사(좌)와 직전 총회장 김병목 목사



신 임원진 - 우로부터 총회장 김영준 목사,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 총무 오세준 목사, 서기 장동근 목사, 재무 김기진 목사, 회계 백영자 목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수 1:7)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수 1:7)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핵 위협 등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화해

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73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편집자 주〉



말씀을 증거하는 조용목 목사



조용목 목사와 73차 총회 임원진



목사고시합격자 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선교사 인사



등록접수



은혜와진리교회 김은경 솔리스트의 은혜로운 찬양



신임 지방회장 인준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인사말
신임 총회장 김영준 목사



인사말
총회장 김병목 목사



축도 및 총회 폐회기도
전임 총회장 배진기 목사



총회 개회기도
전임 총회장 진동용 목사



대표기도
전임 경기지방회장 엄하석 목사



특별기도 1
전임 부산지방회장 정영진 목사



특별기도 2
전임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



특별기도 3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사회
총무 정진균 목사



헌금기도
재무 백영자 목사



성경봉독
회계 조선남 목사



광고
서기 임형순 목사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



감사위원회 서기
황용연 목사



예산위원장
윤병하 목사



근속패



염종규 목사



장세영 목사



김여호수아 목사



소영진 목사



안종식 목사



석춘자 목사



이창순 목사



박운석 목사



김정근 목사



유홍열 목사



김사무엘 목사



감사패
전국사모회장 신영희 사모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선 목사)는 지난 5월 9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를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9일(목)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순복음선한교회 창립예배 성료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5월 12일(주일) 순복음선한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은숙 목사(순복음선한교회)의 찬양인도에도 이어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서기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서성영 목사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 가족의 특송 후에 지방회 부회장 서경오 목사(순복음세운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왕하 2:7-11 말씀을 본문으로 '갑절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

게 해당하고 했을 때, 엘리사는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는데, 엘리사는 그 갑절을 주위 요단강을 쳤는데 물이 갈라져 강을 건넜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경배를 하였듯이, 오늘 창립을 계기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회 부회장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순복음찬양교회)의 창립 공포 및 임명장과 공로패 수여 순서 후에 선교회 양승욱 목사의 축사와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권면이 있었다. 이어 사회자의 인도로 순복음선한교회를 위한 헌신기도와, 김은숙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김효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순복음선한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만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도자와 국가안보 위해 기도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4차 기도회 및 간담회



진동용 목사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5월 17일(금) 온양제일호텔에서 제5차 나라와 민족과 아산시 발전을 위한 기도회와 간담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발전과 지도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김영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종관 장로(아산시 장로회 대표)의 대표기도, 임인숙 목사(여목회자 대표)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출 3:7-10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들이었다"고 전하고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 장차 애굽의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여 결국 바로의 왕궁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한 지도자, 종교다원주의와 혼



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혼돈한 상태를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내는 지도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했다.

김소윤 전 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인사와 공지사향 순서로 이어졌다.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전 총기연 총회장)의 인도로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환영사, 박경귀 아산시장의 시정보고, 상임회장 박기환 목사(총기총연 총회장)의 총기연 보고, 정병환 목사(아기연 대표회장)의 아기연 보고 등의 순으로 환영과 보고의 시간을 가진 후 3부 기도회로 이어졌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기독교지도자

협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행복힐링콘서트를 비롯 다양한 발전계획을 추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정팔 목사(실무회장)의 인도로 열린 3부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발전과 지도자를 위해,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 상임회장 온재현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조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설교는 은혜와 감동으로 - AI는 참고자료로만”

살롬나비, 제55회 월레포럼 개최...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환 박사)는 5월 10일(금) 오후 3시 과천소망교회(장현승 목사 시무)에서 "AI와 말씀 설교-요한복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5회 월레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꿈을주는교회를 담임하는 이대희 목사(전 서울장신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월레포럼은 과천소망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주제 발표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무총장 김윤태 박사(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기도는 '한국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는 구제이사 이은희 집사(명기앤트리 대표), '한국사회와 안정을 위하여'는 전 사무총장 이일호 박사(칼빈대 은퇴교수), '세계선교와 난민을 위하여'는 특별위원 박홍기 박사(한국크리스천신문 주필)가 주제별로 하였고, 주제 발표 후 살롬나비 총무인 최선 목사(세계로부전교회 담임)가 살롬나비 강령을 제정한 후 박봉규 목사(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주제 발표에서 이대희牧사는 AI(인공지능)로 인

한 정보가 넘치는 오늘날 현실에서 설교자가 직접 경험하고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기보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인본주의 헬레니즘화된 자료에 의한 설교 자료를 모아 준비한 설교로 성도들의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감동이 없으며 수많은 이단들이 제공한 가짜 신앙의 자료를 통한 거짓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설교는 성경을 근거한 말씀 중심이어야 하며,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리"(요 1:1)에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한복음을 적용한 말씀설교 10가지 실천술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말씀설교를 하라.
2. 성경을 통으로 보고 하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 하라.
3. 정교하게 구성된 설교의 플롯으로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화하라.

4. 이야기와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질문을 사용하라.
5. 다양한 사람들을 일대일과 그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는 살아 움직이는 일상설교를 하라.
6.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설교를 하라.
7. 이야기체제를 살려 이야기가 마음에 심겨지도록 설교하라.
8. 말씀을 오늘에 재현하는 설교를 하라.
9. 본문 자체가 설교하게 하라.
10. 케리그마(선포)와 디다케(가르침)를 균형있게 하라. 등 10가지를 강조했다.

월레포럼 후 5월 이사회에서는 상반기에 진행한 행사로 '격주로 지속되고 있는 중보기도회', '제54회 월레포럼', '상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의 사업을 보고하고, 5월 31일(금)에 개최는 되는 제28회 학술대회, 상반기 워크샵 개최 등 2024년 상반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기총 성명서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월권이고,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다.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신체 외관·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

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다.
법을 초월하여 선제적 판단을 하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판사 스스로도 권한을 남용하며 '판결'로 사법부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관련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여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신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호르몬 치료'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호르몬 치료 없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고,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2024년 5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최성해 목사, 동양대 제10대 총장 취임

문재인 정부의 면직 요구로 떠났다가 복귀

최성해 전 총장이 동양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지난 5월 10일(금) 취임했다.
최 전 총장은 과거 조국 사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총장 면직 요구와 '임원취임승인취소'로 동양대 총장직을 타의에 의해 떠나야 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최종 승소 결정을 받아, 5월 10일 동양대 제10대 총장에 취임했다.
최성해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과 그에 따른 소송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 임명
2020년 11월: 교육부 이사취임 승인 처분 취소 결정
2020년 12월: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2021년 12월: 1심에서 패소
2022년 10월: 2심에서 승소
2023년 8월: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 보냄
2024년 3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발표하는 2024년 본문의 게이시 통계계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데이트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 심지어 살인이 행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결혼한 가정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깨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 사회가 되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결혼하여 만들어지는 가정은 교회와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중요한 공동체다. 이런 가정 공동체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병들고 깨어지고, 미혼(未婚)으로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가정이 건실(健實)할 때 사회와 국가는 건실해지고, 그렇지 못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붕괴에 이른다. 한국사회가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나 최저출산 국가로서 미래에 국가 인구의 사라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살롬나비는 2024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가정, 자녀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같이 표명하고자 한다.

1. 결혼과 가정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유일하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사회 존속을 위하여 만드신 인간 행복을 위한 창조의 질서이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으로 표현한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신부와 같다고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오늘날 이혼과 낙태로 얼룩진 가정의 상황은 가정의 본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2.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혼 구원과 원만한 가정을 위해서 인내와 사랑을 요청한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은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동안에는 유지되겠지만, 그 감정이 식은 후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임을 알려주어, 믿기로 작정한 후에 하는 것이 요청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차이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이유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과 인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동일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성경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정하는 이상적(理想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 몸이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1-33). 성경은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여성의 인격과 지위를 남성과 동일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오늘날처럼 여성 인권이 신장된 시대에서도 하나의 이상적인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볼

교는 "여성을 혐오"하고 유교는 여성을 멸시한다. 논어에는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어려우니 가까이하면 겉손치 않고, 멀리하면 원망한다"고 하였다. 터툴리안, 어거스틴, 아퀴나스와 같은 중대 교부들조차도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현들도 그 시대에 아들로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결혼 관계를 어려워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을 유지하는 위한 지침을 일러준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와 예수님께 하듯 존경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인원과 지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4.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존경과 순종이다.
현대사회는 전통과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권위적인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의하고 국가 공무원, 부모, 장로, 가르치는 자, 상전과 남편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남편의 권위를 말하는데,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나, 남편에 대한 순종은 다른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가정의 수장(首長)으로서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신다. 신약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남편이 아내

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남편의 권위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5.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실천과 표시에서 남편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나온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내어주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영원한 사랑이다. 성경은 다음같이 가르친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타나 주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5-27).

남편의 아내 사랑은 부드러운 언어와 가시적 배려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음 속에 숨겨서는 아내를 감동시킬 수 없다. 마음으로는 사랑은 외면적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능한대로 바로 실천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에 대해 신뢰와 친밀과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아내로부터 존경과 권위는 남편이 먼저 아내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표시함으로써 나오게 된다. 아내로부터 존경받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관계에서는 명령 복종의 상하관계보다는 서로 간의 요청과 들어줌의 친구 관계로 발전할 때 보다 친밀하게 다정하게 느껴지게 된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봄날을 맞아 근로자들과 함께 봄나들이

굿윌스토어, 장애인과 탈북민 취약계층 자립 터전

장애인과 탈북민 등 취약계층들의 자립 터전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이사장 장형욱, 이하 합재)'이 따뜻한 봄날을 맞아 근로자들과 함께 봄나들이에 나섰다.

함께하는재단 소속 직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지난 5월 13일(월) 경기도 용인 테마파크 놀이공원 '에버랜드'를 찾아 놀이시설은 물론 재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근로자들은 놀이시설을 즐기고 평소 보기드문 동물들도 관람하며 모처럼 일터를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삶의 에너지도 충전했다. 무엇보다, 좀처럼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곳을 체험해보며 경험의 지평을 확대하고 보다 더 깊은 사회 속으로 들

어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됐다.

이번 봄나들이 휴식은 함께하는재단 본부가 매년 소속 장애인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정례 행사 가운데 하나다. 합재는 지난해에도 하루동안 모든 사업장의 문을 닫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음껏 즐기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체육대회를 가지며 위로했다. 당일 모든 매장의 휴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사 진행에 들어간 비용은 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합재본부는 재단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라 여기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흔쾌히 지출을 감수했다. 올해도 하루동안 모든 매장을 휴업하고 취약층 직원들을 우선하는 봄나들이에 나섰다.



6면에서 이어짐

6.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은 부모가 서로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에게서 사랑받는 자녀가 태어난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던 신실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아곱과 아람이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요셉이 태어났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때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게 된다. 자녀들의 정서와 성격은 이러한 부모가 만들어주는 친밀한 정서의 심리적 토양에서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다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생태에 나간 것 같은 불안과 충격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불화가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7.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성경적 가정상을 가르쳐야 한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여 귀중하게 여겼고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교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대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형성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정된 인격으로 성장한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에서 바르게 성장한다. 자녀들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은 인간으로 성장한다. 부모의 신뢰를 이슬로 먹으면서 자녀들은 신뢰하는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청교도 신앙의 교화는 주일학교와 더불어 대안학교까지 운영하며 인격교육을 하였다. 청교도 신앙을 계승한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리 신앙이 가정에서 실천되도록 삶의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리교육과 더불어 인격교육을 해야한다. 인격교육은 우선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표출된다. 교역자들의 인품과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 건강한 성도의 가정은 성경적 부부관계, 자녀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건강한 부부관계와 자녀교육상 제시, 성도들의 건강한 인간관계, 예절 교육 등에서 비로소 신자들 삶 속에 아름답게 뿌리 내리게 된다.

2024년 5월 13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세군노매실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립니다.

박영수 목사를 통해 가족세트전도법으로 훈련받아 전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노매실교회로 전교를 와서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 어르신들은 하나 둘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이사 나가는 상태에서 전도는 거의 불가능 하게 되어 그동안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하다 보니 패영(朋營)하려고 했던 저희 교회가 구세군 본영으로부터 보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3년에 걸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지속적으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이 정착을 하였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60대 등 지극히 교회 분위기는 몰라보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전도해 오셨고 그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우리에게 전도해 달라고 하시니 생명력이 넘치며 기쁨 또한 충만함이 넘칩니다.

박영수 목사의 전도법은 축복기도를 헤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그 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리고 이어서 영접기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전도 갔던 황금부동산 김성대 사장이 드디어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며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고 대답을 했고 새기손가락을 걸고 약속을했습니다.

또한 동네의 어르신을 섬겨 왔는데 그의 아들이 마침 함께 있어 박영수 목사 영접기도를 받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꼭 나오겠다고 이수 교수와 약속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가족세트전도를 통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열매로 이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때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의 군병담게 전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바라고 기도하기는 15인승 버스(솔라티)를 간곡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이 노후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어버이날 맞아 200가정에 감사 선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도너패밀리에 카네이션 전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5월 8일(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200가정에 감사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과 건강식품 등이 담긴 어버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장기기증을 결정해 이식만을 기다리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200가정에 8일 선물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다.

선물에는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과 장기이식인의 감사 편지 책자 및 건강식품 등이 담겼다.



박진탁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누군가의 가족을 살려준 도너패밀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면서 "어버이날이면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자녀 생각에 가슴에 아픔이 쌓였던 도너패밀리에게 올해 어버이날에는 생명을 살렸다는 자긍심이 붉은 카네이션처럼 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뇌사 장기기증인은 총 7,504명이며 이들을 통해 30,732 건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해 장기부전 환자는 급증하고 있어 이들 중 매일 7.9명이 생명을 잃고 있다.

기아대책, 창립 35주년 기념

‘청현재이 성경구절 캘리그라피 전시회’ 개최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35년 동안 미션 NGO로서 활동해 온 기아대책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국내 1세대 캘리그라피 작가인 청현재이 임동규 작가의 재능기부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청현재이 아트센터에서 운영(월요일 휴관)되며, 기아대책의 떡과 복음 정신 및 사역의 감동을 담은 성경구절 캘리그라피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청현재이 말씀그라피선교회와 공간을 후원했으며, 전시된 작품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아대책 해외 영상 사업에 기부돼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2시에는 전시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기아대책 민주식 기대봉사단이 연사로 나선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는 자립준비 청년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그룹 유아이앤과르렛의 축하공연(바이올린 백현진, 첼로 김하빈)이 있었으며, '미션NGO, 기아대책 현장 사역 이야기'란 주제로 민주식 기대봉사단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말씀 캘리그라피 액자를 증정했다.

오정은 희망친구 기아대책 후원자지원본부장은 "기아대책 창립 35주년을 맞아 은혜로운 전시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 공간과 작품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청현재이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며, "후원자님



과 걸어온 미션NGO로서 35년 시간을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이 전시를 통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현재이 말씀그라피선교회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캘리그라피 문화를 다각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말씀 선교단체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형)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선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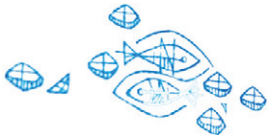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사람의 나이와 노쇠



미국의 해부학자인 레오나르드 헤이플릭(Leonard Hayflick)은 동물실험을 통해 피부세포 분열 주기와 동물의 수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서 동물들의 수명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고양이와 세토 분열 횟수는 8회, 말은 20회, 인간은 60회이므로 고양이의 수명은 16년이고, 말의 수명은 40년,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탈모 치료를 연구하면서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 수명이 약 5년이며, 평생에 머리카락이 25번까지 나오도록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은 120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으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120세 전후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노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령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이 절정기에 이르는 연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10~23세에 절정기에 해당하며, 상상력은 20~30세이며, 창조력은 30~55세이며, 종합력은 45~60세이고, 판단력은50~70세에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체력적인 능력의 절정기에 관한 연구결과로는 신속함은 18~28세

가 절정이며, 힘은 25~35세이고, 기량은 33~43세이며, 인내력은 38~48세, 불굴의 힘은 40~70세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종합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육체적인 인내력이나 불굴의 힘과 같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능력은 50대 이후 70세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려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 이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또한 나이가 60이거나 70세가 되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능력이 발휘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일을 할 때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전쟁을 자원하여 승리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마무리한 것을 봅니다.

육체적인 나이보다 정신적인 나이가 더 많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과 그 반대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도 그 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맑고 밝으며 힘차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육체의 약함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가 되고 보니

이제사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있듯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갈 때

눈물을 머금고 채찍을 드셔야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충분히 알 것 같다.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진짜 행복한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와 나를 울먹이게 한다.

내가 그 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한다.

태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되게 하시더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부모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알길 없는

참사랑의 문.. 엄청난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다.

부모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한 자 답게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신명기 25:2 말씀을 묵상하다
구원받은 감격을 만끽한다.

사설

말씀에 바로 선 한국교회

교단 제73차 총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거행되어 새로운 한 회기를 이끌 어갈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교단의 대표로 섬기는 자리에 나선 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 드린다. 아울러 새 임원진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총회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총성과 봉사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선출된 새 임원진들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사본오 열린 한국교회를 이단 사이버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은 물론 연합기구의 통합 과제와 교회 내일까지 깊숙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력과 맞싸워야 하고 또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사명을 안고 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 유해한 법을 만들거나 이를 묵과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적 신학사조와 세속화의 경향을 따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 등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에 바로 선 한국교회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평안하고 자유로운 신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행동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 해온 우리 교단은 세상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진실과 공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나라의 위기와 북한과의 극한 대립, 핵으로 중무장을 거듭해가는 광기 어린 북한과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한 마음되어 기도하며 나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도 나서야 한다. 국가의 위기 앞에 한마음 모여서 오직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복음으로 말미암은 남북의 평화와 복음통일을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ㅄㅄ력량을 헤치고 나아가길 지혜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함은 물론이요 초저출산에 대한 대책, 중북좌파세력의 입법독주 사태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에 진화론에다 기독교의 창조를 연계시킨 ‘유신 진화론’ (Theistic Evolution)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나중에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도 창조도 아닌 것이다.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과학주의 상상’에 갇히게 만들었다. 진화론은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인문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실험과 검증,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추론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진화론의 모습이다.

‘유신진화론’ ‘진화적유신론’ ‘진화적창조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진화의 사실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가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증명되지 못한 것을 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고전 6:12)고 말씀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믿는바 신앙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성직 후보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배제해야 한다. 신학이 과학에 의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준

- 말씀충만, 성경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aster of Ministry)	3학차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동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요청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